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휴네시온(290270)

소프트웨어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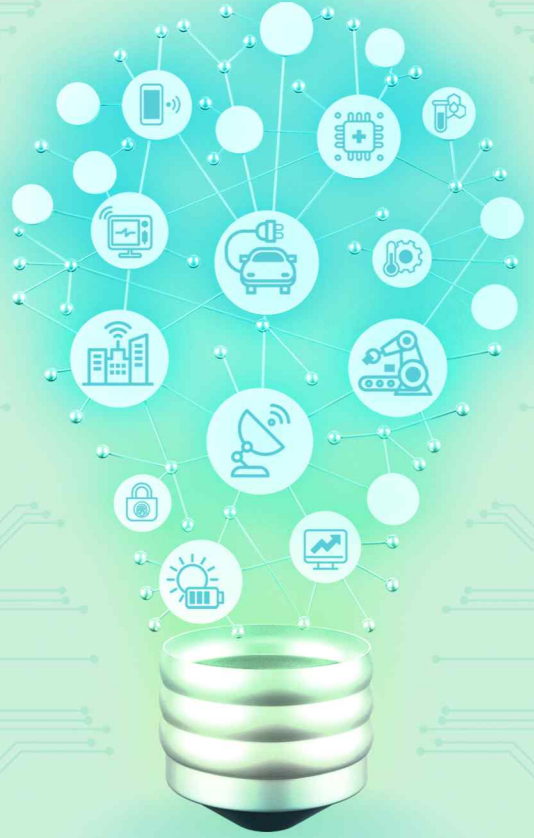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병찬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네시온(290270)

망 연계 솔루션 부문 시장 점유율 1위의 IT 보안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9/27 기준)

대표자	정동섭
설립일자	2003년 12월 15일
상장일자	2018년 08월 02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N/W 보안 솔루션, 시스템 보안 솔루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세정보(2021/09/27 기준)

현재가	6,14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590억 원
발행주식수	9,607,672주
52주 최고가	9,970원
52주 최저가	4,920원
외국인지분율	3.5%
주요주주	
정동섭	34.8%
김영환	8.6%
최진석	3.4%
모비스	6.6%

■ 망 연계 시장 선두를 유지하는 경쟁력 있는 기술 보유

주식회사 휴네시온(이하 동사)은 네트워크 보안 부문의 망 연계 솔루션을 대표기술로 하는 IT 정보보안 전문기업이다. 2003년에 설립되어 2018년 코스닥에 상장 하였고, 망 연계 솔루션뿐 아니라 시스템 보안, 모바일 보안 부문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시장에 진출하였다. 동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망 연계 부문 시장 점유율 연속 1위를 기록할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매출 기준 총 253.9억 원을 기록, 2021년 상반기는 약 107.7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 정부 정책과 IT 시스템 다양화로 시장 확대 전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망 분리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부처가 지난 2010년 망 분리를 완료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2022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가 밝힌 망 분리 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산은 총 2천억 원 이상이다. 또한, IT 시스템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 적용으로 다양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망 연계 솔루션의 적용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이다.

■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

동사는 2020년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인 마이너스AI의 세이프NAC을 인수하고, 올해 20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 사업을 수주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운영기술(OT) 전력망 사이버보안 자산 식별·제어·분석 시스템 개발’을 수행 중이다. 또한, 다수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력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접근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OT 전용 보안 센서도 개발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160.5	14.4	5.3	3.3	10.1	6.3	6.3	5.5	13.0	123	2,319	29.2	1.6
2019	188.3	17.3	19.0	10.1	17.9	9.5	7.8	6.7	18.5	187	2,478	24.9	1.9
2020	253.9	34.9	28.1	11.1	33.2	13.1	13.3	10.7	27.5	349	2,805	16.0	2.0

기업경쟁력

망 연계 시장 점유율 1위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망 연계 부문 시장 점유율에서 연속 1위 달성
- 2020년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매출 점유율 45.4%

NAC 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

- 2020년 마이더스AI의 세이프NAC을 인수하고, 올해 20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 사업을 수주
- 보안 시장에 이어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시장까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반이 준비된 상태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보안성을 강화한 망 연계 기술과 적용제품

- 물리적 단방향 매체를 적용하여 보안수준이 낮은 망에서 높은 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회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기술



물리적 단방향 매체를 적용하여 보안수준이 낮은 망에서 높은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회선을 물리적으로 차단



구분	제품명	인증
일방향	i-oneNet DD	CC인증 EAL2
양 일방향	i-oneNet DX	CC인증 EAL3

시장경쟁력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정부 발표자료)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10.5조	연평균 11.3% ▲
2025년(E)	20.0조	

- 정보보호 기술은 해킹, 정보유출, 도청과 같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들을 총칭
- 정보보호 시장 성장과 동사의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동사의 매출 증대 예상

국내 망 분리(연계) 시장 규모 및 동향

- 망 분리와 망 연계는 상호 필연적 관계로 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2020년 망 분리 시장은 약 1,677억 원으로 조사(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지자체 망 분리 사업에 총 2천억 원 이상 투입 예정
- 동사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정보통신, 방위산업에서도 망 연계 솔루션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 예상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의 사업은 온실가스, 수질·대기오염물질,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 활동과는 무관함.
- 동사는 산업(네트워크 기반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활발한 환경경영 활동을 시행하지는 못하나,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내부적으로 절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지 재고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음.
- 동사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근 감사를 두어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음.
- 동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기업 윤리강령을 공개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사는 부당거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을 공개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I. 기업현황

망 연계 부문 시장 점유율 1위의 IT 보안 전문기업

동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보안 전문기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망 연계 부문 시장 점유율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공공기관, 국가시설 기관, 금융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253.9억 원을 기록하였다.

■ 기업 개요

동사는 IT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2003년에 설립되어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모바일 보안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망 연계 부문 국내 시장 점유율 연속 1위의 동종업계 선두주자이다. 동사는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정보통신, 방위산업 분야의 망 분리 의무화 정책 시행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왔으며, 2020년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매출 점유율 45.4%를 기록하였다. 동사는 최근, 보안이 강화된 양방향 망 연계 솔루션 i-oneNet DX를 출시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스템 접근제어와 패스워드를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관리 솔루션 NGS, 기업용 모바일 단말관리 솔루션 MoBiCa, 출입 및 내방객 출입관리 솔루션 ViSiCa 등 다양한 보안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 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

동사의 최대주주는 정동섭 대표이사로 보고서 제공일 기준 3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동사 임원인 김영환 이사, 최진석 이사가 각각 8.6%,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비스와 자기주식(자사주 매입분)의 지분율은 각각 6.6%, 1.5%이다.

[표 1] 동사 주요 주주

주주명	보통주(주)	지분율(%)
정동섭	3,339,990	34.8
모비스	637,777	6.6
김영환	830,000	8.6
최진석	330,000	3.4
자기주식	144,468	1.5

*출처: 네이버 금융(2021.09.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계열회사는 (주)더썬, (주)씨큐비스타, (주)편그라운드가 있다. 동사는 각각의 지분을 49.0%, 37.9%, 70.0%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주)편그라운드만이 동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주)편그라운드는 AI기반 보안 S/W 개발 회사로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1억 8,422만 원의 자산과 9천만 원의 부채가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누적 매출은 2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사업 분야

동사의 사업은 크게 네트워크 보안 부문, 시스템 보안 부문, 모바일 보안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 보안 부문은 망 연계 솔루션과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솔루션이 있는데, 망 연계 솔루션은 분리된 망 간 안전한 파일 연계와 서비스를 보장하는 i-oneNet과 보안수준이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방향 망 연계 기술의 i-oneNet DD, i-oneNet DX 등이 제품으로 출시되었고,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은 간단한 설정을 통해 트래픽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량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솔루션 i-Spector가 있다.

시스템 보안 부문은 시스템 접근제어, 계정, 패스워드를 통합관리하는 솔루션과 재택근무, CCTV 보안을 위한 솔루션이 있다. 먼저, 통합관리 솔루션 제품인 NGS는 시스템 접근제어, 계정관리, 패스워드 관리 통합의 3 in 1 통합관리 기능과 시스템 접속 경로 일원화, 우회접속 탐지 및 차단 등 시스템 보안에 최적화된 기능이 있는 제품이다. i-oneJTac은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해 편리한 원격접속과 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품이고, CamPASS는 CCTV 보안 관리를 위한 제품이다.

모바일 보안 부문은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모바일 단말 관리 및 내방객 출입관리 솔루션이 있다. 먼저 모바일 솔루션 제품인 MoBiCa는 모바일 단말 관리(MDM) 기술이 적용되어, 모바일 단말 및 앱 관리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편리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제공한다. 방문객 출입관리를 위한 솔루션인 ViSiCa는 기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방문객의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제품이다.

동사의 모든 제품은 CC인증, GS인증, KC인증 등을 획득한 품질 보장 제품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증된 제품이 필요한 공공기관, 국가기반시설 기관, 군 관련 기관, 지자체, ISMS 인증 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고, IT 기술발전에 따른 보안 이슈로 민간기업, 금융기업, 병원 등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주력 상품인 망 연계 솔루션과 주요 고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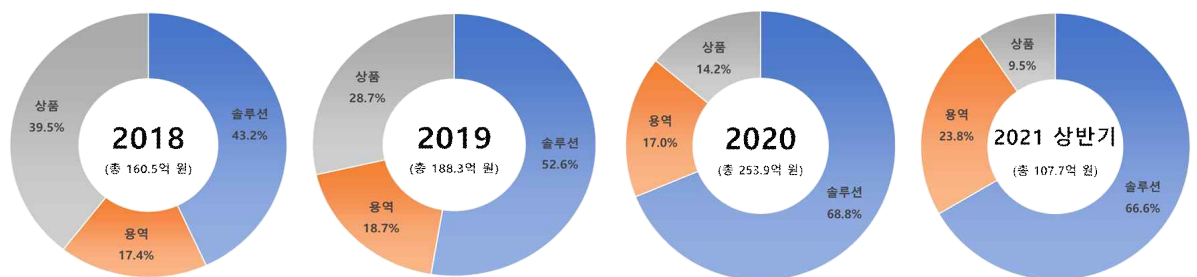
*출처: 동사 제공자료(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매출실적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따르면, 2020년 총 매출은 2019년 대비 34.9% 증가한 253.9억 원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 주력사업인 솔루션 부문이 174.8억 원(68.8%)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매출은 43.2억 원(17.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열회사의 매출을 의미하는 상품매출은 총 35.9억 원(14.2%)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0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1억 원, 33.2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48%, 86% 증가한 실적이다. 이는 망 연계 솔루션인 i-oneNet 등 네트워크 기반 보안 솔루션이 시장에서 선전하여 실적을 견인한 결과이며, 올해 초 원격접속 채택근무 보안 솔루션 i-oneJTac 출시로 성장 기조는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2021년 반기까지 매출은 총 107.7억 원을 기록 중이다. 주력사업인 네트워크/시스템/모바일 보안 분야의 솔루션 매출이 71.7억 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66.6%를 차지하였고,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매출이 25.6억으로 약 23.8%를 차지하였다. 상품매출은 10.2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동사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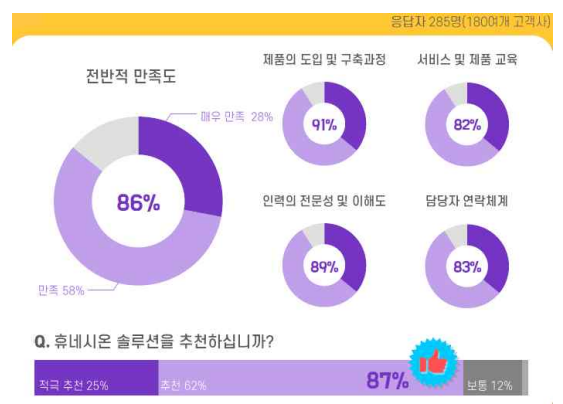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 고객관리

동사는 경쟁력 있는 제품 판매와 함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통한 유지관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동사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의 답변이 86%에 다다랐으며, 특히 제품의 도입과 구축과정, 인력의 전문성 및 이해도 부문은 만족도가 약 90%에 이르렀다. 동사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에만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제품 구매 후 컨설팅이나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림 3] 동사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2021)



*출처: 동사 제공자료(2021)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환경(E) 부문과 관련하여, 생산 및 물질 취급 과정에서 오염방지, 자원이용, 안전보건, 작업환경 등의 이슈 가능성은 제조업에 비하여 낮으나, 서버 가동,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기에너지가 소비되는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사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 활동으로 안전관리 겸임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따뜻한 사람들이 즐겁게 꿈을 키워가는 일터’ 라는 슬로건 하에 회사 내에 휴식을 위한 라운지를 두고 파티션 없는 열린 사무실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동사는 급성장하는 인원 규모에 맞춰 사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교육, 여행, 문화 등 임직원이 희망하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로 매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로 떠나는 신년 워크숍,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Family Day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임직원들을 위해 4인조 국내 워크숍을 실시하여 몸과 마음을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회사 기숙사 제공, 엘리버드 조식 지원, 가족 기념일 조기 퇴근제도,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다.

동사의 반기보고서(2016.06)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17%이다. 이는 동사가 속한 정보통신업의 여성 고용비율 평균인 33.24%(2020년도 산업별 여성 고용비율, 고용노동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 또한 동사의 남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5.8년, 여성 근로자는 평균 4.6년으로 남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동업종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72%를 기록하여 동업종 평균인 74%와 유사하고,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80%를 기록하여 동 산업 평균인 77%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이 실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임직원은 2019년 말 90명에서 2020년 말 117명으로 27명 증가하였다. 또한 2021년 반기 기준, 총 131명으로 14명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사의 정규직 비율은 2021년 상반기 약 98%로, 고용의 양과 질 개선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사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일과 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었다.

[표 2] 동사 남녀 고용비율 및 평균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05	3	108	5.8	7.0	30	58
여	23	0	23	4.6	5.4	21	43
합계	128	3	131	-	6.6	28	54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동사 임직원의 연도별 구성원 현황

성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남	78	1	95	3	105	3
여	11	0	19	0	23	0
합계	89	1	114	3	128	3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의 경우, 동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윤리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는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계 전문성을 가진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개인보호 정책 및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기업 윤리강령을 공개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부조리의 예방, 올바른 기업문화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는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을 공개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당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II. 시장동향

IT 시스템 다양화와 정부 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전망

IT 시스템의 다양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로 망 연계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망 분리 사업 등 정부 추진정책까지 더해져 망 연계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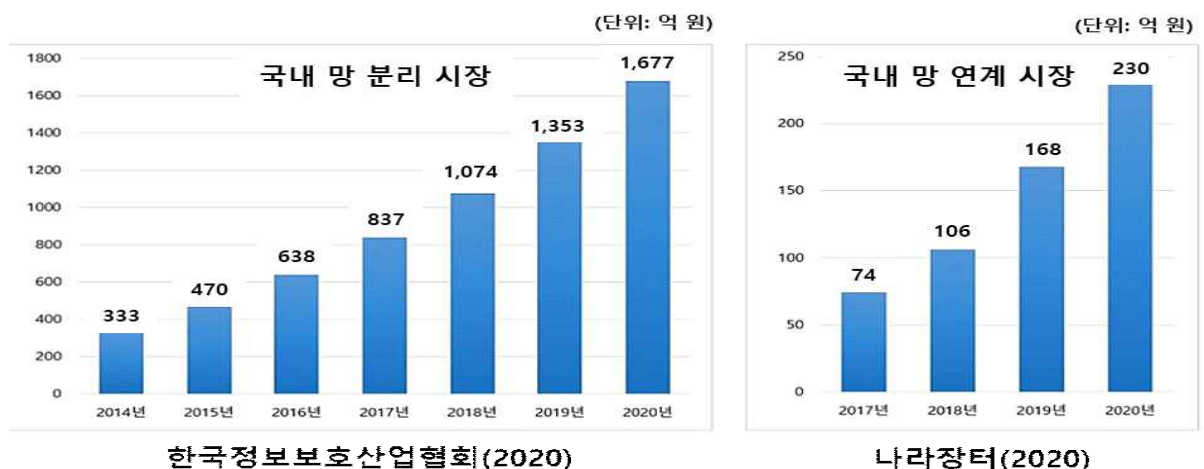
■ 망 분리와 동반 성장하는 망 연계 시장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보안 강화 정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방안이 망 분리 솔루션이다. 망 분리란 인트라넷과 같은 내부망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외부망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로부터 위협요소의 침입을 방지하고 내부정보 유출을 막는 솔루션을 말한다. 망 분리는 내부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와의 연결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나 업무상 외부와의 연결이 거의 불가피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망 연계이다.

망 연계는 보안수준이 서로 다른 분리된 내·외부 네트워크를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파일을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솔루션이다.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료 전송이 필요할 경우 보안정책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는 기술로, 망 분리와 망 연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망 연계 시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망이 분리되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망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망 분리 시장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의하면, 2020년 국내 망 분리 시장은 약 1,677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적인 요소 이외에 다양한 위협요소로부터 민간기업 역시 정보보안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망 분리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정한 망 연계 시장 규모는 매년 평균 4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2020년 약 23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국내 망 분리(연계)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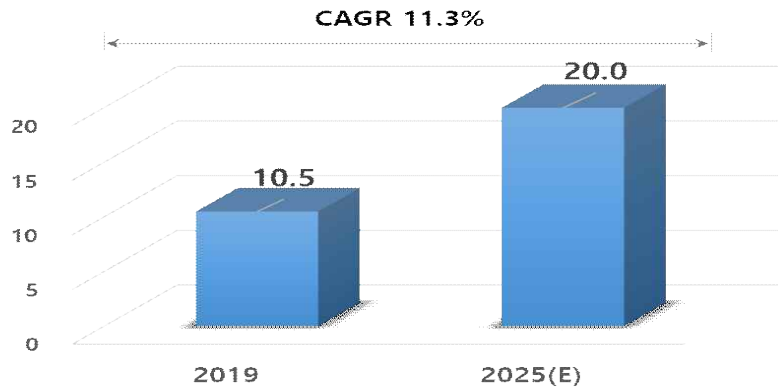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나라장터,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2020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2019년 10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2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시장은 해킹, 내부 정보유출, 변조, 도청과 같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 관련 시장으로 물리보안 시장과 정보보안 시장, 클라우드, 생체인식과 같은 신기술 보안 시장을 모두 포함한다.

[그림 5]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출처: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0)

■ IT 시스템의 다양화로 망 연계 솔루션 시장의 확대 전망

최근 IT 시스템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 적용으로 다양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망 연계 시장은 망 분리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기반시설의 집합체인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재택/원격근무, 이메일 연계, CCTV 연계, 출입통제 시스템 등의 활성화로 적용 대상과 분야가 광범위하게 넓어졌으며, 기술적으로도 클라우드와 개방형 OS에 최적화된 기능이 개발되면서 적용해야 할 범위도 넓어졌다. 스마트시티를 예로 들자면, 스마트시티의 5대 연계 서비스 구축 시 112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등을 위해 경찰망·소방망·통합관제망 등 서로 다른 기관망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망 연계가 필요하다.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집이나 외부에서 내부망에 접속해 자료 요청 시 VPN으로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치고 접속해야 하므로 내·외부망 간 연계 솔루션을 사용한다. 이메일 연계는 내부와 외부의 메일 서버 간에 망 연계를 구축하여 이메일 발신 시 안심하고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망 연계 솔루션의 확대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추가로, 출입통제 시스템은 물리적 보안을 위한 통제 시스템과 이를 통합관리하는 내부망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망은 CCTV 정보가 수집된 외부망 서버와 이를 관리하는 내부망 간에 망 연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자료를 전송한다.

■ 정부 추진 정책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 예상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망 분리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부처가 지난 2010년 망 분리를 완료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2019년 망 분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망 분리 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산은 총 2천억 원 이상으로 여기에 1대의 PC로 망 분리를 도입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방형 OS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방형 OS는 망 연계 에이전트가 필요하며, 망 연계 시장은 스마트시티, 운영기술, 공공기관용 PC 등의 요인에 의해 성장이 예상된다.

스마트시티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망 연계 기술을 적용한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지자체의 스마트시티는 원활한 추진이 예상되며 망 연계 도입 및 사용 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기반시설 및 제조업 등의 운영기술(Operational Technology, 이하 OT)에 변화가 진행 중이며, OT란 국가기반 시설이나 기업의 물리적 장치(출입문, 밸브, 펌프 등)를 직접 모니터링·제어하고 감지 또는 변경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의 OT는 폐쇄된 환경, 즉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망 분리 환경에서 운영하므로 지금까지 ‘폐쇄성’으로 안전하게 시스템 보안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IT 기술발전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OT의 폐쇄성 역시 위협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OT망이 홈페이지와 같은 IT망과 연결하여 운영되기 때문이며, OT 환경에서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망 연계 기술이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PC는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구분되어 공무원 1인당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정 기업 OS에 대한 종속성 탈피와 예산 절감을 위해 2021부터 2026년까지 인터넷용 PC에 개방형 O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윈도우에 종속된 PC 환경을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OS로 교체한다는 의미로, 이때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라 불리는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을 적용하여 1대의 PC로 2개 이상의 O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DaaS를 받은 가상 PC는 백신, 상용 메일 차단 SW, PC 지키미, 유해 사이트 차단 SW, 그리고 망 연계 솔루션까지 5개 SW가 필수로 탑재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 금융권의 메일 보안 강화,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확대에 따른 망 연계 기술 도입 등에 따라, 망 연계 시장의 견고한 성장이 예상된다.

■ 경쟁 기업 현황

망 연계 시스템은 해외보다는 국내에 주로 활성화된 시스템이다. 국내 시장은 5개 이하의 기업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동사는 2015년부터 점유율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45.4%, 2020년 조달청 기준). 동사의 경쟁 기업으로는 한씩시스템, 시큐에버, 에스큐브아이, 소프트웨어솔루션, 퓨처시스템 등이 있으며, 망 연계 솔루션이 망 분리 환경에서 안전한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만큼 기능별 특성과 각사의 IT 환경,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망 연계 솔루션 방식에 따른 CC 인증을 획득한 각사 제품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주요 기업과 대표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한씩시스템, SecureGate]

한씩시스템의 시큐어게이트(SecureGate)는 망 분리 환경에서 안전한 자료 교환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방식의 망 연계 솔루션이다. Non TCP/IP 기반의 자체 개발된 프로토콜 암호·복호화 과정을 통해 전 구간 암호화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내부망으로 파일 반입 시 백신 검사를 통한 악성코드 침입 차단과 외부망 파일 반출 시 승인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큐어게이트는 최상위 보안 등급인 EAL4를 획득했으며, 국정원 검증필과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한 제품이다.

[시큐에버, reverseWall-MDS]

시큐에버의 망 연계 솔루션인 reverseWall-MDS 역시 CC등급 중 최고 수준인 EAL4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응용계층 프로토콜 분석을 통한 중계 프로토콜 통제 및 일방향 전용 프로토콜(HSUP-High Speed Unidirectional Protocol)과 국정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을 탑재(KLIV 2.1)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중계망 통합 보안 솔루션인 reverseWall-pTo는 사용자/그룹 정책 관리를 통해 트래픽 통제, 어플리케이션 사용 통제, QoS 제어가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통제 및 백도어(Back door) 차단 기능을 포함한다.

[에스큐브아이, Net-Protect]

에스큐브아이의 Net-Protect는 고성능 I/O 장비 간 연결에 사용하는 인피니밴드(Infiniband)를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높이고 광대역으로 고속 및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품이다. 자료 전송 시 전송구간의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최신의 보안기능 적용과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 유해 데이터로부터 고객의 인프라 환경을 보호한다. 또한, 웹셸(Web shell) 보안 엔진을 탑재해 웹셸 및 악성 스크립트 탐지/차단이 가능하며, 고객사 운영 환경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제품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솔루션, CrossNet]

소프트웨어솔루션의 CrossNet은 망 연계 채널로 시리얼 인터페이스인 IEEE1394를 사용하는 CrossNet V2.0과 인피니밴드를 사용하는 CrossNetV4.0을 보유하고 있다. CrossNet V4.0은 자료전송시스템인 'CrossNet DataTransfer V4.0' 과 스트림 연계 시스템인 'CrossNet Secure Tunnel V4.0' 의 통합 솔루션을 말하며, CrossNet은 일부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및 지자체 기관들이 사용 중이다.

Ⅲ. 기술분석

동사 핵심기술인 일방향 연계 기술을 중심으로 제품 경쟁력 우위 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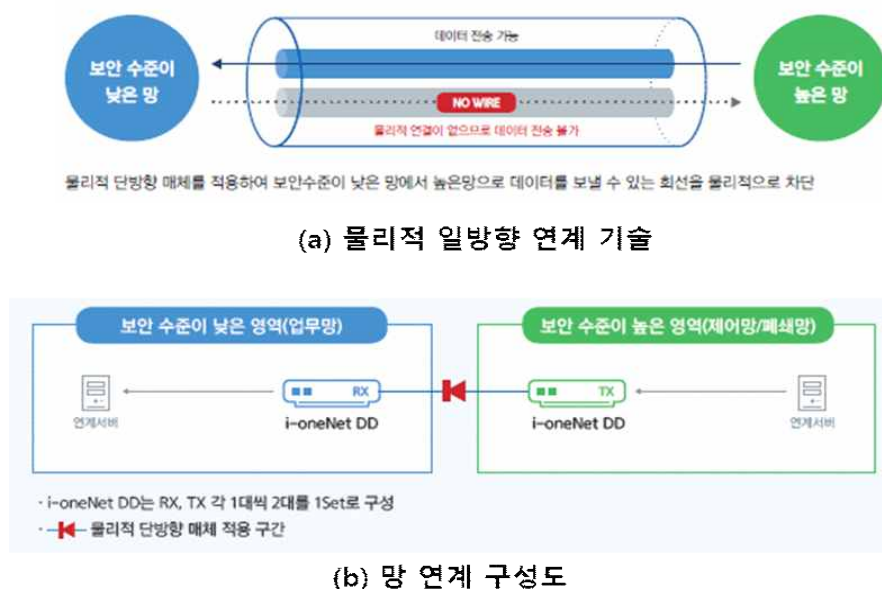
동사는 망 연계 솔루션의 핵심 기술인 물리적 일방향 연계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내부 시스템 접속 경로를 일원화한 통합관리 솔루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망 연계 보안성을 강화한 물리적 일방향 연계 기술

망 연계 솔루션은 서로 다른 망 간 자료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전송받은 자료를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내부망으로 보낼 수 있으며, 업무 연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망 연계는 전송 기술에 따라 소켓방식과 스토리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켓방식은 이더넷, IEEE1394, 인피니밴드 등을 사용하여 빠른 네트워크 전송속도를 장점으로 한다. 동사의 망 연계 기술은 소켓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망 간 데이터 연계에 보안성을 보장하도록 물리적 일방향 연계 기술을 적용하였다.

물리적 일방향 연계 기술이란, 물리적 단방향 매체를 적용하여 보안수준이 낮은 망에서 높은 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회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기술을 말한다. 물리적 회선 연결이 없으므로 보안수준이 낮은 망(인터넷망)에서 높은 망(폐쇄망, 제어망)으로 데이터 전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방향 통신을 위한 구성은 전용 랜카드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동사만의 전용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검증필 암호 모듈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전송 파일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결재 절차 후 파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파일 유출의 위험성 역시 방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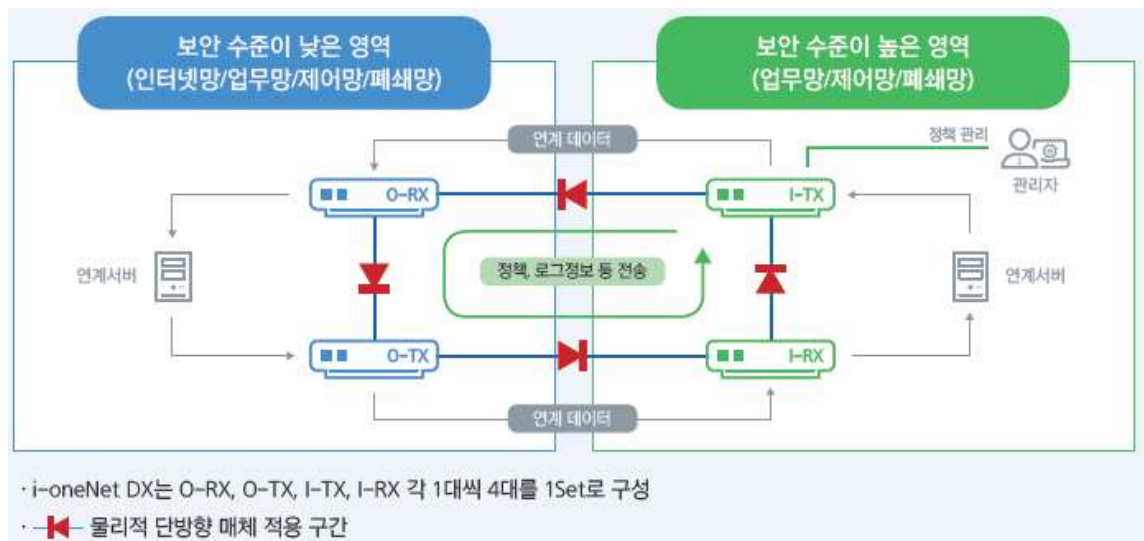
[그림 7] 동사의 물리적 일방향 연계 기술과 망 연계 구성도



*출처: 동사 제공자료(2021),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물리적 일방향 연계 기술을 이중 경로로 구축하여 더 높은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양일방향 망 연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동사의 제품인 i-oneNet DX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물리적 단방향 매체를 이용해 일방향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양방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산업, 철도/항만/항공 등 국가 기반시설, 군 시설에 주로 사용된다. 동사의 양일방향 기술은 매체와 응용계층 세션이 분리되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국내 최초 해당 기술의 CC인증을 획득한 이력이 있다. 또한, 동사는 현재 특허 ‘단방향 통신을 이용한 이중 망간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출원 중이다.

[그림 8] 동사의 양일방향 망 연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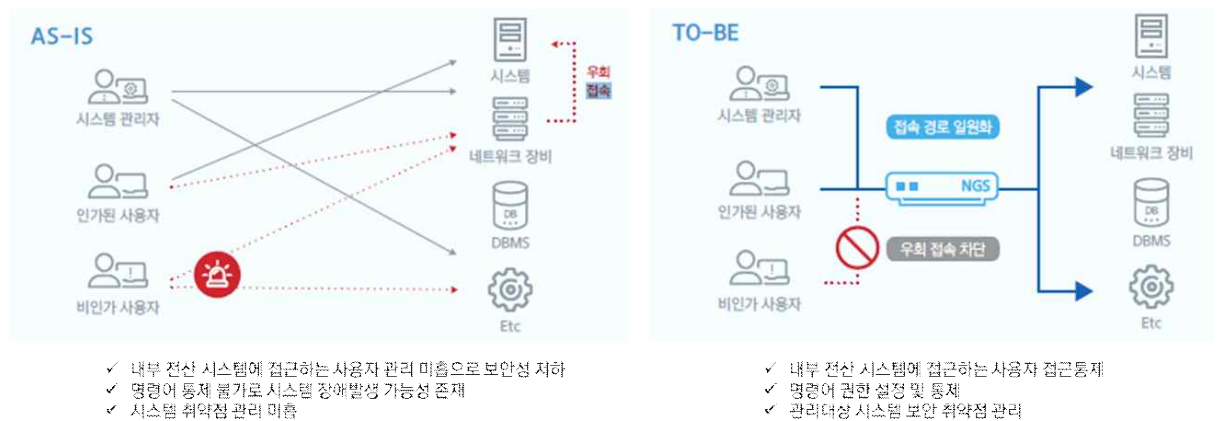
*출처: 동사 제공자료(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내부 시스템 접속 경로를 일원화한 통합관리 솔루션

시스템 접근제어란 보안상 위험으로부터 제반 시설 및 내부 시스템 등을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의미한다. 해당 솔루션은 비인가자의 사용을 막는 인증 접근제어 방식과 불필요한 패킷을 걸러내어 출력을 제한하는 패킷 접근제어 방식으로 구분되나, 결국 ID/PWD 등 로그인이 성공한 경우에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 접근제어 기술은 안전한 계정관리와 패스워드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우회루트를 통해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 경로를 단일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사는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로를 일원화하여 시스템 접근제어와 안전한 계정관리 및 패스워드를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관리 솔루션 NGS를 출시 중이다. 동사의 통합관리 솔루션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ISMS-P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시스템 우회접속 탐지, 내·외부 직원의 시스템 접근통제 기능과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동사가 가진 통합관리 솔루션은 CC인증(EAL3)과 GS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이 보증된 상태로 공공기관 및 금융계열, 일반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동사의 통합관리 솔루션은 특히 ‘저장 장치의 데이터 보호 장치 및 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비인가 사용자 세션을 차단하는 기능, 실시간 연결 세션 강제 종료 기능, 금지명령어 사용 시 세션을 차단하는 기능 등 시중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9] 동사의 통합관리 솔루션 개념도



*출처: 동사 제공자료(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은 관리자가 원격으로 사용자 소유 또는 기업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기타 디바이스를 등록한 후, 사용자의 업무에 특화된 프로파일을 통해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다. MDM은 관리자가 무선랜 액세스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자원을 할당할 수 있으며, 기업용 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행위로 단말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단말을 분실하거나 직원이 기기를 반납할 경우 잠그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다.

MAM(Mobile Application Management)은 MDM과는 달리 디바이스 자체가 아니라 App과 관련된 데이터만 통제한다. 즉, MAM은 물리적인 디바이스 전체는 건드리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App 관리 콘텐츠 액세스만 통제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사용자가 단말을 분실하였을 경우, App과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해당 디바이스에서 지우고 개인 데이터는 남길 수 있다. 또한,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새로운 기능은 물론 패치도 즉시 적용해 새로운 보안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사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MDM과 MAM을 기반으로 한다. 단말 및 App 관리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오피스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단말 정책 관리, 앱 관리, 위치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단말 도난, 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과 PKI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고 VPN 터널링 연결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사는 비콘, NFC, QR코드, 생체인증 등과 연동한 모바일 출입통제 솔루션도 가지고 있으며, 동사의 출입관리 솔루션인 ViSiCa와 연동할 경우 방문지에 대한 사전 방문 등록 및 내방객의 모바일 기기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10] 동사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 주요 기능



*출처: 동사 제공자료(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보안기술의 특성상 항시 취약점 문제를 대비해야 하나, 망 연계 부문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과 정부 추진정책 등으로 견고한 성장 전망

[그림 11]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언택트 상황 지속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최대 영업실적 달성

동사는 언택트 상황 지속에 따른 보안수요 증가와 신규 솔루션들의 안정적 시장 진입으로 2021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6.8% 증가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였다.

■ 주력 제품군의 유지보수 실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꾸준한 실적 성장 마련

동사의 사업 분야는 망 연계 솔루션, 트래픽 수집분석, 통합계정관리 등의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을 주력으로 하는 정보보호 분야 단일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i-oneNet, i-Spector, NGS 등의 정보보안 솔루션을 주요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 유형은 크게 솔루션, 용역, 상품으로 구분된다. 2020년 연결기준 유형별 매출 구성은 솔루션 68.8%, 용역 17.0%, 상품 14.2%를 각각 차지하였고, 전량 내수 매출이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유형별 매출 구성은 솔루션 66.6%, 용역 23.8%, 상품 9.5%를 각각 차지한 가운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인 최초 구축 1년 이후 발생하는 용역 매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4]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매출액	160.5	188.3	253.9	73.4	107.7
매출액증가율(%)	14.4	17.3	34.9	18.2	46.8
영업이익	5.3	19.0	28.1	-4.6	5.6
영업이익률(%)	3.3	10.1	11.1	-6.3	5.2
순이익	10.1	17.9	33.2	-2.5	5.2
순이익률(%)	6.3	9.5	13.1	-3.5	4.8
부채총계	28.9	44.2	73.2	34.1	37.1
자본총계	222.8	238.8	265.8	229.1	268.1
총자산	251.7	282.9	338.9	263.2	305.2
유동비율(%)	788.2	508.6	338.5	565.4	425.5
부채비율(%)	13.0	18.5	27.5	14.9	13.8
자기자본비율(%)	88.5	84.4	78.4	87.0	87.8
영업현금흐름	16.4	30.2	29.1	-7.4	16.3
투자현금흐름	-150.1	-14.5	-20.6	-19.7	-33.2
재무현금흐름	118.6	-4.6	-6.9	-5.2	-4.6
기말 현금	36.2	47.2	48.8	14.9	27.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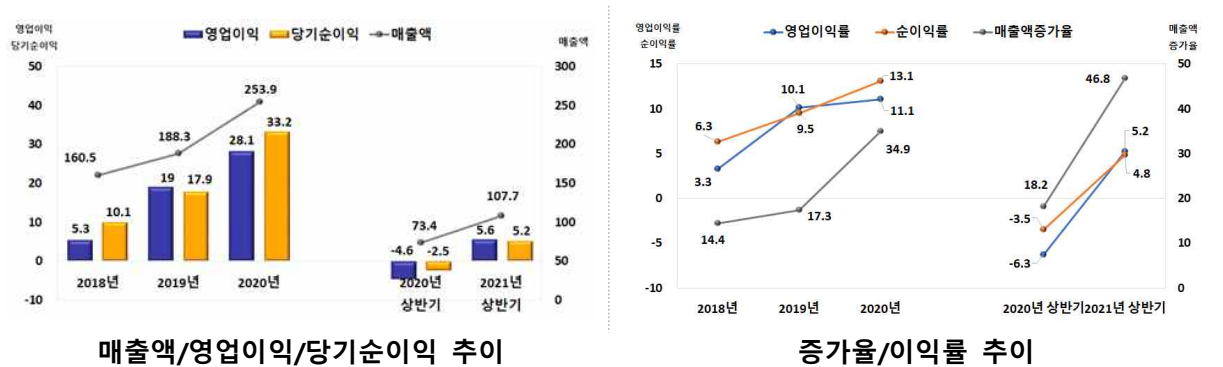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공공기관, 지자체, 금융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통합계정관리솔루션, 원격접속 재택관리 솔루션 i-oneJTac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상기 용역 매출 비중 증가와 더불어 향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보안수요 증가와 신규 솔루션들의 안정적 시장 진입이 영업실적 견인

동사는 망 연계 솔루션 부문에서 양호한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2018년과 2019년 14.4%, 17.3%의 매출액증가율을 각각 기록하며 외형 확대를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 지속 및 보안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4.9% 증가한 253.9억 원의 매출액을 시현 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업계 특성상 서버 비용을 제외한 원가 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최근 3개년 매출 증가에 따른 급여 등 고정성 경비 부담 완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19년 10.1%에서 2020년 11.1%로 개선되었으며, 영업이익은 28.1억 원(+21.6%)을 기록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2019년도에 발생한 4억 원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의 부재로 영업외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매출액 순이익률은 2019년 9.5%에서 2020년 13.1%로 개선되었다. 순이익은 33.2억 원(+85.5% YoY)을 기록하였다.

[그림 12]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3]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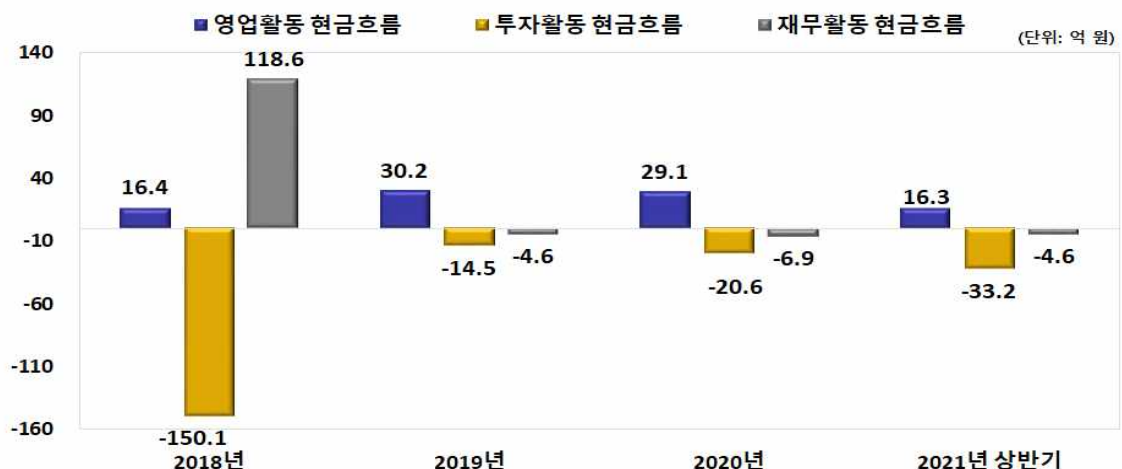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누적 영업실적 반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지속으로 보안수요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정보보안 정책 강화에 따른 망 분리 구축시장 확대, 주요 망 연계 솔루션들의 양호한 시장 지위에 힘입어 2021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8% 증가한 107.7억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솔루션 최초 설치 이후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비중이 전년 동기에 이어 2021년 상반기 총매출 대비 23.8%를 기록하여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에 이어 50% 후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비용로 부담 완화로 2021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2%를 기록하였으며 누적 영업이익 규모는 5.6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법인세 비용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4.8%를 기록하였고, 누적 순이익 5.2억 원을 기록하며 반기 영업손익 및 순손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 시설투자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였음에도 영업활동상 수혜 전망

2020년 양호한 순이익 창출이 유지되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전년과 비슷한 29.1억 원을 기록하였고 투자 및 재무활동상의 현금유출도 유의미할 만한 큰 변동사항이 없는 바, 기말 현금성 자산은 기초 47.2억 원과 유사한 48.8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반기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16.3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사무공간 및 R&D 업무공간 부지확보를 위한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건물의 취득 및 이에 따른 보증금 증가, 기존 종속기업 (주)더센의 지배력 상실 등으로 인한 투자활동 현금 소요가 증가하여 2021년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기초 48.8억 원에서 기말 27.3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정기예금 등을 포함한 동사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2021년 6월 말 총자산의 30.8%, 유동자산의 68.5%를 차지하였으며, 영업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지속하고 있어 동사의 현금 유동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동사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는 매출액의 10~20%를 신사업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있는 바, 상기 R&D 업무공간 확장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향후 영업활동상의 수혜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4]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코로나19 장기화와 신규 사업 다각화로 증장기적인 성장 기대

동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수요증가, 정보보안의 우호적 시장 상황과 함께 사업 다각화로 증장기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호적 시장 상황으로 2021년 성장세 지속 전망

통계청 경제인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국내 재택근무자가 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배 급증한 가운데, 이로 인한 개인 노트북,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에 대한 보안성 확보 이슈가 대두되면서 재택근무 보편화에 따라 동사 제품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존 망 연계 솔루션을 활용하여 외부 단말기의 보안 관리, 내부정보 유출관리, 내부망 접근통제, 접근통제 감사, 보안 인증 등의 보안 기능들을 탑재한 원격접속·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i-oneJTac 및 클라우드 기반 망 연계 솔루션 i-oneNet Cloud 출시 등으로 현 비대면 사회 및 향후 클라우드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DB금융투자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 4,540억 원에서 2021년 5조 2,150억 원으로 확대되어 연평균 16.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중 망 연계 시장에서 동사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매출 기준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계정관리 솔루션 NGS와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CamPASS 등 동사의 제품이 2020년 12월 말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매출액 45.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정보보안 시장에서 동사는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향후 안정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Network Access Control) 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

동사는 2020년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인 마이다스AI의 세이프NAC을 인수하고, 올해 20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 사업을 수주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운영기술(OT) 전력망 사이버보안 자산 식별·제어·분석 시스템 개발’을 수행 중이다. 또한, 다수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력망 환경에서 보안 검증을 위해 네트워크 접근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OT 전용 보안 센서도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세이프NAC 인수를 통해 네트워크 접근제어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OT 보안 시장에 이어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장까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반이 준비된 상태이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의하면, 전 세계 NAC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0.4% 성장하여 22억 달러(약 2조 7,1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는 OT 보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NAC 솔루션 시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H투자증권	Not Rated	-	2020.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연계 솔루션은 조달 판매 매출 기준으로 5년 연속 시장 1위를 유지, 2015-2019년 조달청 나라장터 누적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 41.3%, 2020년 45.4%의 금융 및 공공기관 망 분리 시장 내 1위 기업 ■ 망 연계 보안으로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 시현 가능, 신규 수요 및 교체 수요, 유지보수 매출에서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개선 전망 ■ 2021년에는 매출액 299억 원(+21.7% y-y), 영업이익 58억 원(+51.7% y-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영업이익률이 19.4%로 대폭 확대될 전망, 2021년 PER 10배로 동종 보안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되는 시점으로 판단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5] 동사 주가 추이(최근 1년)



*출처: 네이버금융(2021.09.09)